

즐거운 눈술여행

인간본신의 정치철학

한비자(韓非子) 1

범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장 현실적이며 강제적이고 냉혹하고도 엄숙한 사회의 무기이다. 이것은 사 람을 마음대로 묶어 놓기도 하고 풀 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이 법이라는 것을 동양에 처음 뿌리를 박아 놓은 것이 바로 한비자이다. 한비 자는 중국에서 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 용시켜 통일국가를 이룩했던 진(秦) 왕 조 때의 인물이다. 그는 순자를 스승으 로 모시고 배웠다. 순자는 '인의(仁義)· 겸애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아무 소용 이 없다' 하고 예(禮)로써 인간의 방심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예의 정 신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이른 바 한비 자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비자가 추구한 역사철학은 인간사 회의 진화라는 데에 굳건한 논리의 기초

를 중시하는 일파, 상양(商殃) 등 형벌 을 중시하는 일파 등이다. 한비자는 이 세 파의 이론을 집대성해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그는 이 러한 술수나 권세, 형벌만을 고집하는 사이비한 법가가 아니라 가장 엄정한 법 치주의자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종합적 이고 실증적인 대학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왕학의 추 구라는 점에서는 중국의 다른 고전과 비 슷하지만, 그 가운데 한비자의 색다른 점은 인간관에 독특한 취향을 지니고 있 다는 것이다.

‘禮의 정신’ 발전시킨 법치주의자

를 두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인 유가의 병폐를 남김없이 파악하고 비판했다. 예 칸대 상고시대의 역사는 집을 처음 지은 유소씨(有巢氏)가 그 공적으로 천자가 됐으며, 불을 처음 이용한 수인씨(燧人 氏)가 임금인 되기도 하였다. 중고(中古)에 내려와서는 간척사업으로 홍수를 다스린 우(禹)가 임금이 됐으나 근고(近古)에는 포악한 임금을 죽인 탕(湯)· 무(武)가 정권을 맡았다. 만일 상고의 일을 중고에 한다거나 중고의 일이 근고 에 행해진다면 이것은 넌센스가 아닌가. 그러므로 옛일을 본받으려는 복고주의 는 어리석은 시대착오로서, 그 시대의 일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 처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흔히 말하기를, 법가에는 세 파가 있 다고 한다. 신도(慎到) 등 세(權勢)를 중 시하는 일파와, 신불해(申不害) 등 술책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 엇일까? 인간은 이익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이다. 이것이 ‘한비자 전권’을 관철 하고 있는 냉철한 인식이다. 그는 이렇 게 말하고 있다.

“뱀장어는 뱀과 닮았고, 누에는 애벌 레를 닮았다. 뱀을 보면 누구나 잠잠 놀 라고, 애벌레를 보면 누구나 소름끼쳐 한다. 그러나 어부는 손으로 뱀장어를 잡고, 여자는 손으로 누에를 만진다. 즉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누구나 용자(勇者) 가 되는 것이다.”



황현석

광주대성·초암논술 아카데미 대표강사

■ 우리 아이 과학적 사고 어떻게 기를까



문답 통해 호기심을 키워라



초등학교 시절 장래희망을 묻는 어른들의 질문에 나오는 답은 대개 뻔하다. 대통령, 의사, 군인, 과학 자 등. 시대가 변해 새롭게 이들 목록에 끼는 것이 있더라도 ‘과학자’는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이공계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을 보라. ‘과학자’가 되겠다던 아이들은 좀더 현실적 이고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다.



과학은 이처럼 초등학교 때 갖는 호기심 이상은 아닌 결과. 전문가들은 과학이 ‘과학적 사 고’의 토대로서 모든 학문의 기초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어려울 때의 과학교육 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학에 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현상을 이해한다. 이같은 과정을 반복해 몸에 익히면 과학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전문학원들도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비이커와 스포이드 등을 이용한 과학 실험 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아이의 과학적 사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는 아이의 첫 교사=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 과 결정을 해야 한다. 선택은 때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도 한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과학 실험은 매 순간 선택의 과정이고 이를 위해 과학적 탐구방법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하는 교사다. 즉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 이다. 우선 아이들과 잦은 대화를 통해 호기심을 키우는 연 습을 해야 한다. 대화를 자주 하다보면 아이들의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질문에 대한 부모 의 대응에 따라 아이들의 호기심 은 커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감성은 과학적 사고의 시작= 언뜻 생각하면 과학과 감성은 전 혀 다른 것으로 느낄 수 있지만 과학 적 사고는 사물에 대한 감성적



접근에서 시작된 다. 부모와 함께 산책하던 아이들이 꽃을 보고 향 기를 맡는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자. 거기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아이 의 느낌에 대해 얘기를 나눠야 한



최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전문학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의 한 학원에서 초등학교 4학 년생들이 ‘진자의 원리와 운동’에 대해 수업을 듣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물에 대한 감성적 접근에서 시작

주제 정해놓고 놀이하듯 흥미 유발

다. 다음 다른 꽃의 향을 맡고 다른 점을 얘기하면 자연스 럽게 ‘비교’의 개념을 알게 된다.

아이들이 꽃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꽃을 구성하고 있 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보는 것도 지루해하지 않 게 된다. 처음부터 꽃을 분해해 암술, 수술, 꽃잎 등을 설명 하려 들면 반감이 먼저 생길 수 있다.

부모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질문에 대해 곤혹 스러워 한다. 그럴 때도 감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빠, 왜 달이 나를 따라오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물라”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와 같은 답 보다는 “달 이 우리를 좋아하니까”라고 한다. 그런 다음 느릿느릿 걸 을 때도, 뭉 때 따라오는 달과 ‘놀이’를 통해 흥미를 유발 시킨 뒤 부모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할 때 차분하게 ‘달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면 이해도가 훨

씬 높아진다.

◇적절한 현장 체험학습=아이들 에게 동물과 관련된 책을 읽어주면 서 “초식동물이란 말이나 사슴처럼 풀을 먹고 자라고, 육식동물은 고기 를 먹는단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해 서 아이들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오전 중에 시간을 내 먹이주는 시간에 동물 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육사가 풀을 주는 동물은 초식동물이고, 고기를 주는 동물은 육식동물인 것이다. 사육사의 양해를 얻어 아이에 게도 먹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욱 기억에 남 게 된다.

나들이나 산책을 할 때 물, 나무, 꽃, 촉감, 시각 등 한 가 지 주제를 정해놓고 계속 주제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늘려주면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주제에 대해 부모에게 다 시 질문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도움말=이화카이스트 과학전문학원 정성현 원장>

생활정보 (Life Information) section containing various articles and advertisements.